



# 2009 KCUE 세계대학총장포럼

서동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11월 20일(금) 이화여자대학교 LG 컨벤션홀에서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009 KCUE 세계대학총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계대학총장 포럼은 주요국의 총장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국내 총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대교협 이배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소양과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폴 웨블리(Paul Webley) 영국 소아스(SOAS) 총장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대학국제교류"를 주제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현황과 영국 대학의 국제교류 특징 및 협력유형 등에 대하여 발표하

면서, 국제교류를 통한 학위제도의 질 보증과 유럽 내 국가 간 호환을 위한 국제적 통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리, 대학 랭킹의 적절한 이용, 영어강의 실시, 체계적인 교류학생의 적응 및 통합에 대한 지원, 원격교육의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제1주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초·중등 대상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인 PISA와 유사한 고등교육 학업성취도평가(AHELO)에 대하여 이를 주관하고 있는 OECD의 바바라 이싱거(Babara Ischinger) 국장이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국제수준의 대학평가가 주로 연구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에 반해, AHELO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습과정 및 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분석되어 타 대학/학과와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대학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고, 학생 유치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도 활용될 것이다.

제2주제인 주요국의 대학교육 혁신사례 발표 중 첫 번째로 독일의 호스트 히플러(Horst Hippler) 칼스루에공대 총장이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소와 대학이 통합하여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탄생된 칼스루에공대의 글로벌 수준의 핵심인재 유치 전략, 학제 간 연구방안 및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사고 및 초학제 간(transdisciplinary)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전공을 중심으로 한 학과 구분을 뛰어넘어 핵심역량(competence) 영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학제 간 교육과 연구활동은 큰 시사점을 주었다.

두 번째 사례로 홍콩의 랩치 추이(Lap-Chee Tsui) 홍콩대 총장은 홍콩대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개혁 배경 및 절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각

종 국제랭킹평가에서 아시아 지역 최고 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는 홍콩대학은 최근 대학교육 연한이 4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혁하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문적 수월성, 비판적인 지적 탐구, 평생학습을 추구하고, 윤리와 타인에 대한 존중, 타문화 이해 및 세계적 시민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과정은 도덕적 시민 가치 개발, 지역 및 세계사회에의 참여, 학습과 평가 방식의 다양화, 현장학습에 대한 강조, 다양한 상황·맥락에 대한 탐구, 학제 간 탐구 및 협동,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21세기 창의적 고등교육을 위한 통합적·총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인교육, 즉 지성, 도덕성, 영성의 통합적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해결 능

력, 연역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개발의 지속가능성, 생태보존환경의 인식, 전인적 인격체를 염두에 둔 통합적 총체적 교육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제 간, 학문 간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한동대학교는 2006년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GEA)를 설립하였는데, GEA에서는 학부 학생들이 전인교육을 받으며 인성과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균형적으로 배양하면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아 기업가정신 학사학위(B.S. in Entrepreneurship)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아나 리폴(Ana Ripoll) 바르셀로나자치대 총장이 유럽통합 이후 유럽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에 대하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지향하여 유럽 내에서 학생들의 국가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럽 고등교육 전체 차원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 유럽학점인정시스템(ECTS) 등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유럽 대학의 국제화와 현대화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기회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2009 KCUE 세계대학총장포럼은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그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 시되어 온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외 각 대학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

필 / 자 / 소 / 개

서동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21세기 창의적 고등교육을 위한 통합적·총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인교육, 즉 지성, 도덕성, 영성의 통합적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해결 능력, 연역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개발의 지속가능성, 생태보존환경의 인식, 전인적 인격체를 염두에 둔 통합적 총체적 교육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